

한국 선도의 맥락에서 보는 증산사상

- 전북 서부지역의 선맥(仙脈)을 중심으로 -

김성환

군산대학교 · 교수

- | | |
|-------------------------|------------------------|
| I. 들어가는 말 : 호남의 삼신산 | V. 권극중에서 강증산으로 |
| II. 오래된 선교(仙敎) 전통 | VI. 초월과 혁신의 이중주 |
| III. 민간의 신선담 : 최치원 설화 | VII. 선도(仙道)에서 개벽(開闢)으로 |
| IV. 식지층의 선도수련 : 남궁두와 허균 | |

I. 들어가는 말 : 호남의 삼신산

아동방(我東方) 금수강산 두루돌아 구경할제
춘변산(春邊山) 돌아드니 반도명산 일봉래(一蓬萊)라
동남에는 영주방장(瀛洲方丈) 삼각으로 벌려있고
서북에는 만리해도 십이 무산(巫山) 통하였다.
해상(海上)의 삼신산(三神山)을 오늘이야 알리로드.
(부안지방 민요 「변산팔경가」 중에서)

이 노래는 부안지방에 전해지는 민요의 한 대목으로 작자와 연대가 미상이다.¹⁾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두루 다닌 뒤 봄날의 변산을 돌아보

1) 1972년 여름 부안의 민속연구가인 김형주가 상서면 장동리에 사는 김낙천(金洛天 당시69세)노인의 구술을 채록하여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성, 『오오, 변산

니, 신선이 사는 전설적인 삼신산이 이 일대에 다 펼쳐져 있더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전경』을 펼치면 또한 이런 글이 곧바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예로부터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일명 신선봉(一名 神仙峰) 방장산(方丈山)의 세 산이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리워 오던 곳이다. 방장산(方丈山)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望帝峰)과 영주산(瀛洲山)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선인포전(仙人布鬮)을 이룩하고 있다. 망제봉(望帝峰)의 산줄기가 기복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 이 시루산 동쪽 들에 객망리(客望里)가 있고, … 객망리에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육(六)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姜)씨이오,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土玉)이시고 존호는 증산(甞山)이시니라. … 객망리는 상제께서 탄강하시기 이전에는 선망리(仙望里)라 하더니, 후에는 객망리라 하고, 상제께서 화천(化天)하신 뒤로는 신월리(新月里)로 고쳐 부르고 오늘에 이르도다.²⁾

강증산의 출생지를 설명하는 윗글에는 신선사상의 흔적이 역력하다. 호남 삼신산의 기세(氣勢)가 신선의 자리(仙人布鬮)를 이룬다. 강증산의 생가가 있던 마을은 찾아올 손님을 바란다는 객망리(客望里, 현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로, 본래 지명은 선망리(仙望里)였다. 하늘의 신선이 찾아오길 바란다는 기원이 담겨있다. 강증산은 이처럼 신선사상의 기풍이 농후한 지역에서 1871년 출생해, 1909년 사망할 때까지 주로 전북 서부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는 호남의 삼신산으로 불린 세 산이 있었다. 부안의 변산이 봉래산이고, 고부의 두승산이 영주산이며, 고창에는 이름 그대로 방장산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근에는 우리나라 선도(仙道)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사연이 풍부하다. 고군산에는 신선 최치원의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변산에서는 허균이 정사

이여], 고글, 1995, 38쪽 참고.

2) 『전경』 행록, 제1장 2절~7절.

암에 거처하며 도사 남궁두와 교류해 우리나라 선도 소설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남궁선생전』과 『홍길동전』을 남겼다. 남궁두가 승천하려다가 떨어져 시해선(尸解仙)이 되었다는 장소도 있고, 방장산 자락의 장성은 실존인물인 홍길동의 고향이기도 하다. 두승산 자락 서산리에서 조선 단학의 대가인 권극중이 태어나 살았고, 바로 이곳에서 강증산이 탄생했다.

따라서 증산사상에 선도적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선도, 특히 증산이 주로 활동했던 호남지역 선도의 맥락에서 증산사상을 조명하는 한편, 증산사상에 나타나는 한국 선도의 원형과 그 변용(變用)의 양상을 함께 논구하고자 한다.

II. 오래된 선교(仙敎) 전통

한국 선도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의 고조선과 삼신산 탐사까지 만나게 된다. 특히 전라북도 서부지역은 일찍부터 신선사상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에게 밀려 수천 명의 백성을 이끌고 마한으로 건너와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³⁾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이를 ‘금마(金馬) 마한’이라고도 하는데,⁴⁾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에 준왕이 쌓았다는 성이 지금도 ‘기준성’으로 불린다. 준왕은 해로를 통해 남해 금강하구를 통해 마한 땅으로 들어가 금마에 터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단군신화에서 보이듯 고유한 선교(仙敎)가 성행한 나라였으므로, 그 문화적 영향 또한 마한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삼국지』, 『후한서』 등 참고.

4) 『삼국유사』, 『제왕운기』, 『해동역사』 등 참고.

한데 그 이전, 기원전 4세기부터 이 지역은 이미 신선사상이 유통된 ‘삼신산 해상루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⁵⁾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에 삼신산(三神山)을 찾는 해상탐사대가 약 3백년간 중국 동북부 해안에서 출항해 한반도의 서부해안을 따라 이동했다.⁶⁾ 그 탐사대가 찾던 삼신산이 위에서 언급한 호남의 삼신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어쨌거나 전북 서부지역 주민들이 변산(봉래)·두승산(영주)·방장산을 삼신산으로 보았던 것에서 이 지역에 선도의 기풍이 농후했음을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문헌이나 출토유물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옛 왕조인 백제에서 신선사상이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백제 무령왕(501~523년 재위)릉에서 출토된 구리거울을 들 수 있다. 거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왕실의 공방에서 거울을 만들었으니, 참으로 좋도다! (거울 장식의) 위에 있는 신선은 늙음을 몰라. 목마르면 감로수를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으니, 수명이 마치 쇠나 돌처럼 길어라!⁷⁾

고대 국가에서 구리거울은 왕권을 상징하는 신성한 기물의 하나였다. 이런 기물에 신선을 새기고 그 공덕을 찬미한 것은 백제에서 국가적으로 신선사상을 숭상했음을 증명한다. 1993년 백제 나성과 능산리 무덤들 사이 절터 서쪽의 구덩이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 역시 신선세계를 동경하던 백제인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비록 하단이 연꽃 문양이고 서역 계통의 악기까지 보이는 등 불교를 포함하는 문화적

5)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에 관해 거의 등한시하지만, 중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삼신산 탐사대의 해양루트를 활발히 연구해 수백 편의 논문을 내놓았으며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6) 김성환, 「三神山 관타지와 동아시아 고대의 문화교류」,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제 56집, 2007 참조.

7) 「무령왕릉출토 방격규구신수문동경명(武寧王陵出土 方格規矩神獸文銅鏡銘)」

복합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으나, 특히 두드러진 것은 신선사상의 요소이다. 향로 윗부분의 산들은 신선이 사는 삼신산을 표현한 것으로, 바위 위에서 명상하는 자, 머리감는 도사 등,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신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⁸⁾ 한편 『삼국사기』를 보면, 무왕 35년(636)에 연못을 만들고 그 안에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을 본뜬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보인다.⁹⁾

이처럼 오래 전부터 신선사상의 기풍이 전북 서부지역에 뿌리를 내렸던 것은 분명하다. 멀리 보면 이런 전통이 증산과 대순사상의 선도적 경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산사상의 형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조선 중엽 이후에 본격화된 선도의 증흥이다.

Ⅲ. 민간의 신선담 : 최치원 설화

익히 알다시피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차례 전란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성리학이 더욱 공고해지고 그 영향이 민간까지 확산된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다잡으려는 조정과 사대부들의 위기의식이 성리학 이념의 교조적 강화와 확산을 불러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왕조의 이런 말기적 경

8) 흔히 백제금동대향로의 원류를 중국의 박산향로(博山爐)에서 찾는다. 한(漢)대 이후에 유행한 '박산향로'는 신선이 사는 바다위의 산을 새긴 고급 향로를 지칭한다. 금동대향로는 분명 박산향로를 모티브로 했지만, 중국 향로를 뛰어넘는 예술적 품격과 백제다운 정신세계를 구현했다. 향로에 표현된 도상들은 알고 보면 우리민족 고유의 신선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향로의 정상에 새겨진 봉황은 고대 동이족이 숭상하던 태양새, 지상과 천상을 잇는 메신저로 숭배되던 신조(神鳥)의 이미지를 잇는 것으로, 삼한의 소도에 세워졌던 솟대의 새,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신조 등과 맥을 같이한다. 받침에 새겨진 5개의 용 발톱은 중국과 대등한 백제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고, 향로 하단의 연꽃 문양은 신선사상과 불교 등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백제인들의 회통과 창조적 정신을 보여준다.

9) 『삼국사기』 「백제본기」.

향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류도 출현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신선사상에 뿌리를 둔 선교와 중국도교가 복합된 선풍(仙風)이 일어난다. 신선사상 혹은 선도의 증흥은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특히 전북 서부지역이 그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신선 최치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 핵심에는 최치원이 옥구 내지는 고군산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설화가 있다. 한 예로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교인 계원필경(校印桂苑筆耕)』을 편찬하며 그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公)의 이름은 치원(池元)이요, 자는 해부(海夫)요, 고운(孤雲)은 호이니, 호남 옥구 사람이 다.”¹⁰⁾ 하지만 최치원의 고향은 흔히 경주로 알려져 있다. 그 근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다.¹¹⁾ 이에 대해, 이규경(1788~?)은 최치원의 출생지가 옥구인데, 최씨 성의 발상지가 사랑부이기 때문에 ‘사랑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한다.¹²⁾ 즉 최치원의 본관은 경주이며, 출생지는 옥구라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적잖은 인사가 지금의 군산 일대를 최치원의 출생지로 보았다.¹³⁾ 하지만 최치원의 출생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기는 어렵다. 천여 년 전의 일인데다 사료마저 부족해, 사실을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

10) 徐有渠, 『校印桂苑筆耕集』 「序」: 字海夫, 孤雲其號也, 湖南之沃溝人.

11) 김부식은 최치원이 경주 사랑부(沙梁部) 사람이라고 한다.(金富軾, 『三國史記』 「崔致遠傳」). 하지만 여기에는 “기록이 소멸되어 그 가계의 계통을 알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일연은 최치원이 본파부(本彼部) 사람으로 진한(辰韓) 6촌의 하나인 자산진지촌(菴山珍支村) 지백호(智白虎)의 후예라고 전한다.(一然, 『三國遺事』 「奇異」 「赫居世王」)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叢稿』 「崔文昌史蹟辨證說」: 공의 자는 고운, 또는 해부인데, 혹은 해운과 고운은 그의 호라고 하였다. 호남 옥구 사람인데, 혹은 경주 사람, 혹은 사랑부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예전 진한 6부의 족속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들인데, 고허촌(高墟村)의 수장인 최씨(崔氏)는 형산(兄山)에 강림하였다. 뒤에 신라 유리왕9년(32)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이어 성을 하사하였는데, 고허촌을 사랑부로 삼고 최씨의 성을 하사했기 때문에 사랑부 사람이라고 칭한 것이다.

13) 한 예로 조선후기에 영의정을 역임한 조두순(趙斗淳, 1796~1870)은 「삼현사중수기(三玄祠重修記)」에서 이렇게 전한다. “삼현사는 옥구에 있다. … 문창후가 여기서 태어나고, 충익공(忠翼公) 趙泰采, 1660~1722)과 충민공(忠愍公) 李健命, 1663~1722)이 서로 이어 이곳의 수령이 되었으니, 고을 인사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추모한다.(祠在湖南之沃溝, … 文昌產于茲, 忠翼忠愍, 相繼尹于茲, 鄉人士, 所以復其慕也.)” (『沃溝郡志』)

의 진실' 차원에서 최치원의 출생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일대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믿어온 '생각의 진실'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⁴⁾

이 지역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자리 잡은 최치원은 관료나 학자보다는 기이한 신인(仙人)의 풍모를 보인다. 이런 이미지는 조선중엽에 출현한 판타지소설인 『최고운전(崔孤雲傳)』에서 정점에 이른다. 여기서 최치원은 천상에서 잠시 인간계에 귀양 나온 신선이다. 그리하여 금돼지의 자식으로 낙인찍혀 버려진 아이를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짓먹이고, 하늘의 수천 선인들이 가르쳐 세상에 없는 문장가로 키운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는데, 그 도중에 용궁에 들어가 용왕도 만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중국의 황제와 문인들을 죄다 무릎 꿇리고 돌아오는 영웅담이 펼쳐진다. 하지만 최치원은 끝내 고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가야산에 은거한다. 여기에 (판본에 따라) 어느 나무꾼이 산에 들어갔다가 고운과 승려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고 내려왔더니 3년이 지났더라는 후일담이 덧붙이기도 한다.

소설 『최고운전』을 두고 역사적 진위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소설을 관류하는 정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되었지만, 『최고운전』을 선도(仙道)사상이 두드러진 소설로 보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이야기는 선도적 초현실성, 최치원의 신선적 면모, 중국에 대항하는 민족 주체의식, 내용 전개에 도술적 흐름 등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처럼 전북 서부 지역에 각인된 최치원은, 태생적으로 하늘에서 귀양을 와서 끝내 은둔한 '신선'이고, 신라나 중국 모두에서 정치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희롱하는 '자유인'인 동시에, 중국에서 겨레의 위상을 드높인 '민족 영웅'이며, 문장으로 천하를 진동시킨 '문화 영웅'이다. 여기에는 선도적 초월의식, 최치원의 신선적 면모, 중국

14) 김성환, 「고군산의 최치원 문화원형 연구-새만금 최치원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2009.

에 대항하는 민족의식, 내용 전개의 도술적 흐름 등이 강하게 드러난다.¹⁵⁾ 이런 신선담은 지역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며, 선술(仙術)과 신선세계에 대한 지역민의 동경을 잘 보여준다.

IV. 식자층의 선도수련 : 남궁두와 허균

최고운 설화가 민간설화로 전승되고 유포되었다면, 식자층에서도 선도를 수련하는 기풍이 일어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십년 쯤 되던 1608년 즈음, 전북 변산에서 한국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극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만남의 주인공은 남궁두와 허균. 그들이 대면하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선조41년(1608) 가을, 허균이 공주에서 과직당하고 부안에 살았다. 그런데 남궁선생이 고부로부터 걸어서 나(허균)의 집을 찾아 주셨다. 그리고 네 가지 경전(『황정경(黃庭經)』 『참동계(參同契)』 『도인경(度人經)』 『옥추경(玉樞經)』)의 오묘한 뜻을 나에게 전수해 주시고, 또한 그분이 스승을 만났던 전후 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선생의 나이는 그해에 여든세 살이었으나 용모가 사십육칠 세에 불과해 보였다. 시력과 청력이 조금도 쇠약하지 않았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나 검은 머리털이 의젓하여 마른 학(鶴)과도 같았다.¹⁶⁾

1608년 허균은 변산 우반곡의 정사암에 은거했다. 그 해에 도사 남궁두가 고부에서 허균을 찾아와 도교 경전을 전수하고, 자신이 스승을 만나 수련한 전모를 알려준다. 허균이 그 내용을 정리해 『남궁선생전』을 지었는데, 이는 『홍길동전』과 더불어 허균의 양대 소설로 꼽히고

15) 김성환, 위의 글 참고.

16) 허균, 『성소부부고』,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있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실존인물로, 허균보다 백여 년 앞서 살았던 의적이다. 그에 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실록」 6년 12월 29일조 등에 보인다. 근자에는 홍길동의 고향이 전남 장성이라는 실증적 연구도 이뤄졌다.¹⁷⁾ 어쨌거나 허균은 부안에 와있을 당시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를 채록했을 것이다. 홍길동의 고향인 장성이 허균이 머물던 변산 우반곡의 지척이므로 가능했던 일이다.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소재에 영웅담과 선도적 요소를 가미해 『홍길동전』을 지었다. 그러므로 허균의 제자 이식(李軾)이 “(허균이) 『수호전』을 모방해 『홍길동전』을 지었다”¹⁸⁾고 한 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남궁선생전』 역시 도사 남궁두를 소재로 하는 선도 류의 소설이다. 그런데 홍길동이 허균보다 1백년 앞서 살았고 『홍길동전』에 판타지 성향이 농후하다면, 남궁두는 허균과 직접 교류했고 『남궁선생전』은 한층 사실성이 높은 전기(傳記)에 가깝다. 허균은 『남궁선생전』에서 남궁두의 행적과 수련 과정을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다. 『남궁선생전』과 『홍길동전』은 모두 허균이 변산에 머물면서 썼던 작품으로 추정된다. 남궁두와의 만남이 허균에게 선도적 상상력과 자유의 정신을 일깨웠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이자 선도적 영웅소설인 『홍길동전』의 출현을 가져왔던 셈이다.¹⁹⁾

허균은 『남궁선생전』에서 자신이 선도수련을 잘 모르는 문외한인양 짐짓 둘러댄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연막이다. 1611년 함열에 귀양 내려와 있던 허균은 송천옹(宋天翁)이라는 도사에게 내단 수련에 도움이 될 만한 비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다. 여기서 “젊은 시절에 『포박자(抱朴子)』를 잘못 읽고서 금단(金丹)의 약을 먹으면 신

17) 또한 『홍길동전』이 역사적 인물인 홍길동의 행적을 상당부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가 활빈당을 조직해 의적활동을 했음은 물론, 그가 세웠던 이상국가인 울도국이 일본 오키나와 열도에 있었다는 주장과 논증이 제기되고 있다. 설성경, 『홍길동전의 비밀』,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참고.

18) 李軾, 『澤堂雜著』.

19) 김성환 외, 『개벽과 상생의 문화시대, 새만금문화권』(정보와 사람, 2006) 제3장 참고.

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는 고백을 털어놓고 있다.²⁰⁾ 허균이 젊어서부터 신선술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나이 들어서에는 몸소 내단수련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허균의 저서로 학계에 보고된 『동국명산동천주해기(東國名山洞天註解記)』도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²¹⁾ 진실거사(眞實居士)라는 가공의 인물을 작가로 내세운 글에서, 허균은 우리나라에도 신령한 산천경계가 있어 진인(眞人)과 선관(仙官)이 이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오랑캐로 낮춰보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탄한다. 허균이 가공의 인물을 작가로 내세운 것은 선도를 이단시하던 사대부들의 비난을 피하기위해서였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천의 영험함과 진인·선관의 존재를 강조한 것은, 첫째 선가(仙家)에서 흔히 보이는 민족적 주체 의식의 발로였을 것이고, 둘째 현실세계의 배후에 보다 근원적이고 초현실적인 세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셋째 이를 통해 당시의 성리학적인 신분·권력·윤리 질서가 결코 유일하며 절대적인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허균은 신선사상에서 사대주의적이고 규범주의적인 성리학을 해체시키는 대안적 세계관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남궁두가 고부에서 허균을 찾아온 것도 그저 이뤄진 일은 아닐 것이다. 전북 임피 출신의 남궁두(南宮斗, 1526~?)는 호남 일대에서 매우 유명한 도사였다. 이능화가 『조선도교사』에서 ‘조선단학과’의 첫머리에 남궁두를 배치했을 정도이다. 일찍이 이증환은 “단학 분야에서는 함열 사람인 도사 남궁두와 고부 사람인 청하자(靑霞子) 권극중이 있는데, 이들은 또한 방술을 수련해 이름을 떨쳤다”고 했다.²²⁾ 『남궁선생전』에 기술된 남궁두의 수련과정은 내단수련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는 곧 ○음식 조절(辟穀절식辟穀節食) ○호흡 수련(조식운기調息運氣)

20) 허균, 위의 책, 「여송천옹(與宋天翁)」

21) 정민, 『조월의 상상』 제6장(휴머니스트, 2002) 참고.

22) 이증환, 『擇里志』.

○상념과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 가지기(염담무위恬淡無爲) ○체
 내의 기운 돌리기(주천화추周天火候) ○몸동작 수련(도인외공導引外
 功) ○신태 이루기(연성신태煉成神胎)로 이뤄져 있다. 여기 보이는 수
 려서²³⁾들도 대개 도교의 대표적인 경전들이다.

이것은 성리학 일변도였다고 알려진 조선에서 16세기에 이미 상당
 한 수준의 선도수련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자기 자신을 ‘큰
 무당(大巫)’²⁴⁾으로 불렀던 허균이 붓을 들고 한바탕 푸닥거리를 벌였
 던 큰 굿판에서 남궁두가 선무(仙舞)를 내보이고 홍길동이 칼춤을 추
 었으니, 그 춤사위가 조선 천지를 진동시켰다. 그것은 선도의 수련문화
 가 조선 전역으로 번지는 모종의 ‘신호탄’이었다. 17세기에 이르면 특
 히 호남에서 내단 수련의 기풍이 크게 일어나는데, 남궁두에 이어 내
 단 수련문화를 성숙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권극중(權克中, 1585~
 1659)이다.

V. 권극중에서 강증산으로

권극중은 전북 고부(古阜) 사람으로 진사시(進士試)에만 합격했을
 뿐 평생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수련과 학문에만 열중하는 은둔적 삶
 으로 일관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 출신이 대개 그렇듯이, 권극중은
 어려서부터 유교 교육을 받았다. 그가 남긴 문집에는 성리학의 입장에
 서 이기론(理氣論)을 논한 글이 있으며, 따라서 그를 성리학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선도적 기풍이 흠뻑 풍기는 ‘청하자(靑霞子)’라는
 호가 말해주듯, 권극중은 유교를 넘어 단학에 심취했다. 그는 흔히
 ‘단경(丹經)의 왕’으로 불리는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독자적으로

23) 『黃庭經』, 『參同契』, 『度人經』, 『玉樞經』 등.

24) 허균, 『성소부부고』, 『대혈자(對話者)』.

해석하고, 나름의 내단사상을 구축해 『참동계주해(參同契註解)』를 남겼다.

권극중은 조선 시기에 이미 내단 이론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권극중을 단학과 방술의 대가로 지목했으며, 황윤석(黃胤奭, 1729~1791)은 그를 ‘우리나라 단학 이론의 개창자’로 평가했다.(『증보해동이적』) 이규경도 권극중의 『참동계주해』를 조선단학과의 주요한 저서로 꼽고 있다.(『오주연문장전산고』)

권극중의 관심이 이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내단 수련가들과 종횡으로 얽히고설킨 교류관계를 맺었다. 특히 그의 문집인 『청하집(靑霞集)』에 남궁두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만남궁진사(挽南宮進士)」)가 실린 것으로 보아, 권극중이 남궁두와도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권극중의 외조부가 함열 사람인 남궁희(南宮熿)였음을 들어 남궁두가 권극중의 외가 인물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⁵⁾ 이처럼 권극중의 내단사상은 단지 우연한 계기나 개인적 성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호남지역의 선도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다.²⁶⁾

남궁두로 대표되는 16세기의 선도수련이 17세기에 와서 권극중의 내단사상 연구로 심화되었다. 게다가 남궁두가 권극중의 외가 인물로, 가계를 따라 선도의 사상적 영향이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권극중이 또한 강증산의 외가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증산의 모친은 권(權)씨로 이름이 양덕(良德)이다. 『전경』은 강증산의 출생담을 이렇게 전한다.

그 모친이 “이평면(梨坪面) 서산리(西山里)에 근친가서 계시던 어느 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 석달 만에 상제(上帝)께서 탄강 하셨도다.²⁷⁾

25)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대원출판, 2005.

26) 김성환, 위의 책.

증산의 모친이 태몽을 꾸 이평면 서산리는 곧 권극중이 살던 마을이다. 위에서는 서산리를 한자로 ‘西山里’로 표기했지만 이는 잘못으로, ‘書山里’가 바른 지명이다. 이 지명은 권극중이 책을 산처럼 쌓아놓고 읽었다는데서 유래했다. 지금은 비록 터만 남았지만 권극중을 기리는 사당인 서산사(書山祠)가 있었을 정도로, 권극중은 이 일대에서 깊은 정신적 영향을 끼쳤다.[사진1 참고] 지금도 서산리에는 권극중에 관한 존경과 신비한 설화가 널리 전해지고 있다.²⁸⁾



[사진 1] 권극중 사당(書山祠) 자리를 알리는 유허비

증산의 어머니가 권극중의 후손으로 바로 이 서산리에서 태몽을 꾸고 증산을 잉태했으며, 증산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권극중이 이 일대에서 큰 존경을 받던 대학자였던 데다 외가의 어른이까지 했으므로, 강증산이 어려서부터 권극중의 정신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남궁두-권극중-강

27) 『진경』 행록 1장 9절

28) 필자가 현지에서 조사한 설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극중이 죽은 뒤 한참 지나, 마을사람이 권극중의 아들에게 동네 앞길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뵈었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권극중의 아들이 마을사람이 말한 길목을 지켰는데, 아나나 다름가 아버지가 길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엎드려 예를 표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연을 물으니, 권극중이 손에 든 낫을 보여주며 집에 나무뿌리가 자라 자르려고 낫을 갈기 위해 대장간에 간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아들이 다시 돌아가신 어머니의 안부를 묻자, 권극중이 옆집 아낙이 밤마다 물을 푸는 소리가 시끄러워 도통 잠을 못 자는데, 아마도 그 아낙이 네 어머니인 모양이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대장간 방향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하여 이상하게 생각한 권극중의 아들이 부모의 무덤을 파보니, 아버지의 무덤에는 나무뿌리가 자라고, 어머니의 무덤에는 물이 차 있더라는 것이다. 이에 두 사람의 무덤을 이장했다고 한다. 이야기에겐 권극중을 바라보는 후대인들의 시선이 담겨있다. 이 정도면 권극중이 지선(地仙)이나 시해선(尸解仙)쯤으로 대접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권극중이 1659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3백5십 년 가까이 이런 설화가 전해진 셈이다. 권극중이 이 일대에 미친 문화·정신적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김성환, 위의 책 참고.

증산 등으로 이어지는 선가(仙家)의 기풍이 정신적으로는 물론 가계(家系)상으로도 얽히고설켜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초월과 혁신의 이중주

남궁두와 허균 그리고 권극중 등으로 대표되는 선도문화는, 성리학이 이념적으로 경화되고 삼정문란이 심화되던 조선 후기사회의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한다. 특히 호남지역은 정여립의 난 이후 반역의 땅으로 지목되어 중앙권력에서 소외되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수탈당했다. 그리하여 남궁두와 권극중 같은 걸출한 내단 수련가들이 등장한 이래, 이 지역에서는 초야에 묻힌 식자층과 민간에서 선도를 수련하는 기풍이 크게 확산되었다.

우울한 처지에 놓인 인사들이 심신을 수련해 선계를 넘나드는 신선이 되기를 열망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선도를 수련한다고 입신출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정치에 실의하고 생활에 궁핍했던 이들에게 선도는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통로였기 때문이다. 흔히 수련하는 도인은 세상일을 초월해 은둔하는 삶으로 일관한다고 여긴다. 유교가 현실적이고, 불교는 탈속과 중생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반면, 선도 내지 도교는 단지 은둔적이고 초월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편협한 생각일뿐더러, 사실과도 다르다. 현대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을 적용해 본다면, 선도는 정치·사회적으로 유교나 불교에 비해 보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색채를 띤다. 유교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적이고, 불교 역시 보수 내지는 중립적 경향이 강하지만, 선도는 평소에 은둔하다가도 유사시가 되면 저항의 깃발을 든다.

선도 내지 도교는 근본적으로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다. 자연 질서가 우선이고, 인륜 및 사회질서는 부차적이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누구는 군주고 누구는 백성이지만, 발가벗고 보면 다 같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다. 즉 ‘자연적 생명’이 근본이고, ‘사회적 질서’는 부차적이라고 인식한다. 생명가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우주의 기(氣)를 고르게 나눠가진 존재로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한 마디로,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따로 없다”는 게 선도적 자연주의 사상이다.

허균은 선도적 세계관의 이런 특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그의 소설에서 남궁두와 홍길동은 선도의 이런 두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은둔적 도사’인 남궁두와 ‘도사적 영웅’인 홍길동이 실은 동전의 앞뒷면인 것이다. 한편 권극중 역시 권력집단의 탐욕과 부도덕성에 분노하고,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가슴아파했다. 권극중의 현실인식을 소개할 때 흔히 인용되는 「빈 마을(空村)」이라는 두 수의 시가 있다.

백성들은 날로 곤궁해지는데, 관가는 세금을 거둬 풍족해지네.
노인은 강둑 쌓는 작업에 나갔고, 자식은 성 쌓는 부역에 불려갔네.

폐가에는 소와 양이 버려져 있고, 텅 빈 마을에선 아전들만 뽐내며 다니네.

조세 실은 수레는 어떻게 다닐까? 가을비에 다리가 물에 잠겨 버렸는데.

(民戶日凋擦, 公家賦斂饒. 翁歸阻河役, 子赴築城搖. 破宅牛羊露, 空村吏卒驕. 稅車何以渡, 秋雨浸溪橋.)

텅 빈 마을엔 뽐나무만 우거졌고, 지는 해에 희미한 연기만 보이네.

젊은 아낙이 다리 가에서 슬피 우니, 출정했던 남편이 시체로 돌아왔단네.

세금을 재촉하는 공문서가 날아오고, 찬 서리는 가을 위세를 더욱 떨치네.

해가 다 가도 좋은 방도가 없어, 새벽 밥 지을 때 벼를 태워 불 피우네.

(空村翳桑柘, 落日見煙稀. 少婦河橋哭, 征人旅棺歸. 簿書頒稅

令, 霜露助秋威. 卒歲無長計, 晨炊燃織機.) (『청하집(靑霞集)』)

가림주구로 피폐해진 백성의 현실을 개탄하며, 이를 초래한 관료사회의 부패를 혹렬히 비판하는 현실인식이 드러난다. 기묘한 아이러니다. 명문 세도가의 탐욕스러운 사대부들이 성대한 산해진미를 늘어놓고 흥겹게 유선시(遊仙詩)를 읊조릴 때, 정작 선도를 수련하는 도사는 비참한 백성의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부패한 지배집단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교=세간·참여’, ‘선도=초월·은둔’이라는 이분법이 얼마나 잘못된 통념인지 잘 보여준다.

부조리한 사회현실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좌절이야말로, 사람들을 선도수련과 정신적 자유의 길로 이끄는 가장 혼란 계기였다. 선도의 자연주의와 심신수련은, 신분·규범·권위·이념 따위가 지배하는 세간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중후기에 호남 지역에서 꽃핀 선도문화는 경화된 유교사회의 모순을 치유하는 선도의 치유력이 빚어낸 ‘초월’과 ‘혁신’의 절묘한 이중주였다고 할 수 있다.

VII. 선도에서 개벽으로

16~17세기에 무르익은 전북 서부의 선도문화는 조선 말기에 이르러 다시 이 지역 특유의 미륵사상 등과 결합해 이른바 ‘개벽’의 사상문화로 승화되었다. 경주에서 시작했으나 호남에서 성대해진 동학을 비롯해, 증산과 소태산(少太山) 박중빈 등이 모두 이 일대에서 개벽을 외치고 개벽의 세상을 꿈꾸었다. 동학이나 증산, 원불교 등이 유불선(儒佛仙) 삼교의 합일을 주창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선도수련의 비결(秘訣)이 이들 사이에서 엮히고설키며 전승되었

던 사실이 밝혀져, 이 지역에 뿌리 깊은 선도문화가 개벽사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증산사상과 원불교에 공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수련서인 『정심요결(正心要訣)』의 전승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주목을 끈다. 『정심요결』의 수련법은 심성(心性)을 안정시키고 기를 연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심장의 화기(火氣)를 내리고 신장의 수기(水氣)를 올리는 이른바 ‘수승화강(水昇火降)’을 강조하고, 매일 새벽에 정좌해 숨을 골라 단전호흡을 하며 침을 삼키는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전형적인 성명쌍수(性命雙修)의 내단 수련법이다.

안동준의 연구에 따르면, 『정심요결』은 송말원초 영보파(靈寶派)의 인물인 정사초(鄭思肖, 1241~1318)가 남긴 『태극제련내법(太極祭鍊內法)』에서 비롯되었다. 조선말에 어떤 경위로 흘러들어온 이 책을 전북 부안 사람인 이옥포(李玉圃)가 재편집해 『영보국정정편(靈寶局定靜篇)』을 지었고, 그것이 증산 계열의 수련법문으로 수용되었다. 원불교의 제2대 종정인 정산종사가 소태산의 문하에 들기 전 1917년 늦가을에 강증산 생가에서 증산교 비전의 수련법문을 입수하고 강증산이 수련했던 모악산 대원사에서 석 달 동안 수련하는데, 이 때 정산종사가 수련한 책이 『정심요결』로 밝혀졌다. 그리고 후에 이 『정심요결』을 보완한 『수심정경(修心正經)』이 원불교의 수련법문으로 정식 채택되었다.²⁹⁾ 『정심요결』의 전승과정은 근대 개벽사상의 형성에 선도문화가 끼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강증산은 ‘불교의 형체, 선도의 조화, 유교의 범절(佛之形體, 仙之造化, 儒之凡節)’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合)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고 하여 유불선의 전통을 함께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³⁰⁾ 그런 가운데도 “좌우에 유불(儒佛)의 기운과 더불어 선(仙)을 본체로 삼

29) 안동준, 『『수심정경』의 도교적 연원』,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8권, 2002.

30) 『전경(典經)』 예시 13절.

아 천추만세 나아가기”³¹⁾를 말하니, 증산이 특히 선도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증산은 또한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³²⁾고 하여 자신이 신선으로 재림할 것을 암시했다.

강증산은 남궁두에서 권극중으로 이어지는 선도의 전통을 계승했지만, 또한 이를 새로운 ‘개벽’의 정신으로 승화시켰다. 특히 그는 단지 상상과 초월 속의 신선세계를 동경하기보다, 이 땅 위에 선경(地上仙境)을 건설하려는 열망을 품었다. 이런 염원이 승화하여 ‘개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낳았다. 증산은 이렇게 말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³³⁾

대립하고 투쟁하는 상극의 원한을 풀고, 더불어 조화하는 상생의 삶으로 전환해 인간 세상에 후천선경을 열자는 것이 ‘개벽’의 정신이다. 동아시아적 유토피아의 이상이었던 신선세계는, 이렇게 강증산에 와서 땅 위로 내려앉았다. 그는 조선 말기에서 일제를 거치는 시대의 암흑기, 억압과 수탈이 극에 달한 세계에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선경(仙境)을 세우고자 했다.

이런 ‘개벽’의 사상이 간명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지배 권력의 억압과 수탈 그리고 외세의 침탈로 고통이 극에 달하던 민초에게서 솟아나온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억압하고 가해한 자가 짓눌리고 고통당한 자에게 화합을 말하기는 쉽다.

31) 『대순전경(大順典經)』초판본.

32) 『전경(典經)』행록 제5장 25절.

33) 『전경(典經)』공사 제1장 3절.

그러나 억압당하고 고통 받은 자가 먼저 ‘원한을 풀자’고 하기는 어려운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증산은 이 땅의 민초들에게 스스로 먼저 ‘원한’의 사슬을 풀자고 했고, 경쟁과 보복이 아닌 ‘서로 살리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고 했다. 이것은 극심한 고난과 좌절을 뚫고나온 위대한 정신의 통찰이자 가르침이었다.³⁴⁾

34) 김성환, 위의 책.

【참고문헌】

- 陳壽, 『三國志』
范曄, 『後漢書』
一然, 『三國遺事』
李承休, 『帝王韻紀』
許筠, 『惺所覆瓿稿』
李重煥, 『擇里志』
徐有榘, 『校印桂苑筆耕集』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軾, 『澤堂雜著』
韓致齋, 『海東繹史』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대순진리회출판부, 1974.
이상호, 『대순전경』, 선학사, 2001.
김민성, 『오오, 변산이여』, 고글, 1995.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대원출판, 2005.
김성환 외, 『개벽과상생의 문화지대, 새만금문화권』, 정보와사람, 2006.
정민, 『초원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김성환, 「三神山 판타지와 동아시아 고대의 문화교류」,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제56집, 2007.
김성환, 「고군산의 최치원 문화원형 연구-‘새만금 최치원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2009.
안동준, 「『수심정경』의 도교적 연원」,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학』 8권, 2002.

■中文摘要■

韓國仙道的脈絡與甌山思想

-以全北西部地區的仙脈為例-

The Jeungsan Thought in View of the Context of Korean Daoism

金晟煥

Seong-Hwan Kim

國立群山大學校

Kunsan National University

姜甌山生於1871年卒於1909年，主要活動在全羅北道西部地域，因此他的思想基於此地的精神文化。我們在本文中，尤其是以此地的仙脈為中心探討甌山思想形成的背景和脈絡。在全羅北道西部地域，古來有非常濃厚的神仙思想的傳統，我們在與古朝鮮準王的到來，三神山說話，百濟的神仙思想等有關的紀錄和文物中可以尋現求其例證。朝鮮中葉以後，在此地以民間為中心盛行崔致遠神仙說話，而且以南宮斗·許筠·權克中等有識之士為中心又勃興仙道修煉的風氣。特別是，他們之間不僅有仙家學風的連繫，而且在家系上還有緊密關係，姜甌山也是不例外的。之外，在19世紀末20世紀初，在此地所發興的韓國新宗教中又互相傳承仙道修煉秘訣。姜甌山一邊繼承這樣的仙道傳統，又一邊把它改為新的開闢的精神文化，他不向往超越的神仙世界，却希望在現實上建立地上仙境，為此要求解冤相生的精神，其為生命·自由·和平的講話。

關鍵詞：甌山，全羅北道，神仙思想，仙道，南宮斗，權克中

◎ 투 고 일 : 2009년 7월 13일

◎ 심 사 기 간 : 2009년 7월 22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09년 8월 8일